

수출입 정보

2019.10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입안계획서

02. 수출입물류 동향

- '맞대응 카드' 꺼낸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19개 품목 병해충 전염 우려물품 지정

03. FTA 동향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개선 안내
- 관세청,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 제도' 도입

04. 최신 품목분류

- 방사선 차폐용 앞치마가 분류되는 호는?
- 물감으로 사용하는 커피가 분류되는 호는?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36호, 2019.9.23>

□ 개정사유

효과적인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업 확대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검사 체계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주요 개정 내용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지정 등으로 인한 규정 정비

* 고시 제6조(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및 별표1(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의료기기(의료기기법)·방사능 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의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 지정
부처 내 업무 이관(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전파시험인증센터)
기존 운영 중인 폐기물 협업분야 변경(수입 → 수출입)

□ 안전성 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기존 부서 간 서류를 인계하여 처리하던 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협업검사센터에서 위험관리센터로 직접 선별기준 적용 요청 절차 마련

□ 기타 규정 명확화 등 용어 정비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협업부처	대상물품	안전성 관련 법령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환경부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류(개인 전자상거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고용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산업안전보건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전파법	〃
산림청	우드펠릿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탄류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수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물질 및 그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수입
7개 부처	12개 물품	11개 법령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37호, 2019. 9. 10., 일부개정>

□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2호, '18.12.27.)

□ 개정 사유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용도외 사용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기간 단축 등 업체 부담 완화-민관합동규제개선단(국조실), 반도체산업협회 등 건의 수용

□ 주요 개정내용

사후관리 면제 승인 신청 신설(제11조, 별표 2 등)

○ 학술연구용 관세 감면 물품이 과세 가격 2천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세관에 사후관리 면제 승인 신청 가능

물품 특성, 용도에 적합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별표 2)

○ 원재료·부분품·견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된 후 3개월 이내 소모될 경우, 사용 장소에 '반입사실이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간(용도외 사용 금지 기간)으로 정함

○ 학술연구용 등 기계·기구류는 내용 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 '설치 완료가 확인된 날'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함

그 밖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조문 정비 등

○ '반도체 제조용 자외선 램프'(8539.49-1010)를 용도세율 적용 신청 대상 물품으로 추가(별표1의 가)

○ 사후관리 종결 신청서, 사후관리 결과 확인 보고서를 사후관리 종결신청서로 통합(별지 제14호 서식 등)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고시 제2018-53호, 2018.11.19>

□ 개정사유

증가하는 한-중 해상우편물 통관 지원을 위해 인천해상교환국이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통관우체국 지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인천해상교환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추가 지정(고시 제4조)

02. 수출입물류 동향

“‘맞대응 카드’ 꺼낸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 신청서류 확대 등 수출절차 엄격”

마침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WTO 제소 등 여러 카드를 꺼내들며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했으나 일본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응하지 않았다. 통제 수준은 지난 행정예고 당시와 동일하게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옮겨 비우대국과 유사한 수준의 통제를 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9월 18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가'에서 '가의2' 지역으로 변경했다.

일본을 포함한 '가의2' 지역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가의1' 지역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별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5종으로 '가의1' 지역보다 2종 더 많고, 심사기간도 15일 이내로 최고 열흘이 더 길다.

포괄허가 역시 신청서류 3종에 심사기간은 15일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반면 '가의1' 지역은 신청서류 1종에 심사기간 5일,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이후 20일간의 의견 접수 결과, 국민 대다수(91%)가 개정안을 지지했다”며,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수출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종류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개별허가	신청서류	3종[수출허가 신청서, 판정서(전문/자가), 영업증명서]	5종[수출허가 신청서, 판정서(전문/자가), 영업증명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등, 최종사용자 서약서]
	심사기간	5일	15일 이내
	개별허가 면제 (재수출·중계수출 관련)	허가 면제	허가 필요
포괄허가	심사기간	5일	15일
	유효기간	3년	2년
	사용자포괄허가 신청 대상	CP 전체 등급	CP AA 이상(CP A 예외적 허용)
	사용자포괄허가 신청서류	1종(수출허가 신청서)	3종(수출허가 신청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판정서(전문/자가))
	사용자포괄허가의 재수출	가능	예외적 허용
	품목포괄허가 신청 대상	CP AA 이상	CP AAA
상황허가	허가 대상	인지한 경우, 통보받은 경우	인지한 경우, 통보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02. 수출입물류 동향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19개 품목 병해충 전염 우려물품 지정”

“검역본부, 붉은 불개미 검출 우려 ↑ ... 9월 1일부터 검역 시행”

최근 수입 조경용 석재 등에서 붉은 불개미가 검출되는 등 식물류 이외의 비식물성 수입화물을 통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부착·유입 가능성이 큰 수입 중고 농기계·건설기계를 병해충 전염 우려물품으로 지정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이에 9월 1일(수입일 기준)부터 ▲궤도형 중고 농기계(트랙터는 중고 전체), ▲궤도형 건설기계는 수입 항에서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상대국에서 수출 전 흙이나 병해충이 없도록 세척과 식물 잔재물 제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 912-0614)로 문의하면 된다.

[검역 시행 대상 중고 농기계, 건설기계 (HS CODE)]

HS 코드		품명	비고
8428	90-9000	기타(무한궤도식 고소작업대 포함)	
8429	11-1000	무한궤도식 불도저	
	19-0000	불도저, 그레이더, 레벨러, 스크라퍼, 탬핑머신, 로더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	무한궤도식에 한함
	52-1022	중고 무한궤도식 굴삭기	
	52-1090	기타 굴삭기	무한궤도식에 한함
8430	10-0000	항타기, 항발기	무한궤도식에 한함
	41-1000	천공용 기계	무한궤도식에 한함
	41-2000	시굴용 기계	무한궤도식에 한함
	49-1000	시추기	무한궤도식에 한함
8433	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무한궤도식에 한함
	52-0000	그 밖의 탈곡기	무한궤도식에 한함
8701	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91-2000		
	92-2000		
	93-2000	농업용 트랙터	
	94-2000		
	95-2000		
8704	10-0000	덤프차(무한궤도식 캐리어덤프 포함)	무한궤도식에 한함

03. FTA 동향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개선 안내”

<관세청공지, 2019. 8. 30>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절차 완료를 계기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8월 13일 밝혔다.

□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는 2019.9.1부터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되,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을 두고 2020.1.1부터 완전이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내절차 완료 국가) 한국,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 (국내절차 미완료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 또한 과도기간 중 한-아세안 FTA 당사국별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운영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수출당사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 기재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국 :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붙임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서 HS 2017의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 확인
 - (수입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현행과 같이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HS 2012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 상기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절차 완료시 추가 공지

03. FTA 동향

“관세청,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 제도’ 도입”

“평택세관 대상 시범 운영 ... 10월 중 전국 세관으로 확대 예정”

관세청은 현재 평택세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FTA 사후적용(경정청구) 전자심사 제도’를 10월부터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FTA 사후적용을 받으려면 수입납세신고 정정(경정청구 또는 세액정정)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각 세관 심사정보과 또는 납세심사와 직원들이 일일이 심사를 진행했다. 형식적인 요건을 검증하는 것이지만, 그 건수가 많아 처리기간이 50~60일 가량 소요됐다.

이처럼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애로사항이 많아 FTA 사후적용 건에 대해 위험도를 반영한 전자심사 프로세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전자심사 프로세스가 적용되면 2개월가량 소요됐던 처리기간이 1~2일 정도로 크게 줄어(신청일 다음 날 처리) 업체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심사를 통해 일부 선별된 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별 심사과정을 거친다.

관세청은 9월 30일까지 평택세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10월 중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FTA 사후적용 전자심사 혜택과 관련한 첨부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첨부서류를 종류별로 구분·제출하지 않거나 납세신고 정정 신청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심사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서류 3종(원산지증명서, 운송 증빙서류, 상업송장)을 MYC 첨부서류 제출 기능(콤보박스)을 활용해 각각 종류별로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심사시스템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칸에 C/O, 운송 증빙서류 칸에 B/L, 상업송장 칸에 인보이스를 첨부해야 유효하게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첨부서류 제출 유형]

구분	내용
사례 1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처럼 하나의 파일로 ‘수입신고 정정신청 관련 서류’ 항목에 첨부하는 경우
사례 2	필수서류 3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구분·제출이 누락된 경우
사례 3	상업송장(인보이스)란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첨부하는 경우
사례 4	계약서, 품목분류 결정 관련 회신문 등 필수서류가 아닌데 필수서류 칸에 첨부하는 경우

04. 최신 품목분류

“부분적으로 호화된 쌀이 분류되는 호는?”



<물품설명>

- 합성성유제 직물 사이에 산화비스무스(약 62.5%)와 폴리우레탄(약 37.5%)을 혼합하여 만든 방사선 차폐 시트(두께: 약 0.22mm) 5개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두께: 약 3mm) 1개를 포개어 넣고 가장자리를 봉제하여 만든 앞치마
- 어깨에 걸고 등 부분의 벨크로를 붙여 착용하는 형태이며, 앞부분은 무릎정도까지 내려오고 뒷부분은 상반신을 덮으며, 방사선 차폐 시트는 전면 부분에 만 있음 [길이: 약 90cm]
- 용도 : 방사선 차폐용 앞치마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6114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치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자용 의류로 분류함

○ 또한, 본 물품은 방사선 차폐 시트와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직물 사이에 넣고 봉제하여 만든 의류이므로 제6210호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직물로 만든 방사선 차폐용 앞치마로, 여자용 그 밖의 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04. 최신 품목분류

“물감으로 사용하는 커피가 분류되는 호는?”



커피를 물감처럼 사용해 인물화를 그리는 화백이 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서 시사만화가로 활동하는 유사랑 화백은 독특한 작품 활동 덕분에 ‘커피 화가’로 알려져 방송을 탔다.

평소 가방에 붓을 넣고 다녀 우연찮게 커피와 붓을 이용해 티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라고 한다. 철공소 주인, 가게 주인, 연극인, 버스 기사 등을 그리다 보니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더해지며 그동안 그려온 인물화도 130여점에 이른다 고 한다.

유 화백은 인물화, 정물화, 사실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주로 에스프레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에스프레소 30잔을 농축하면 진득한 형태와 어두운 색깔을 띠는 커피 물감이 한 통 정도 나오는데, 커피 농축액과 물의 양을 조절하면서 음영을 넣고 색을 맞춘다고 한다.

관세율표에서 **음료수 형태로 된 커피는 제2202호**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 분류된다.

분말 형태로 된 **인스턴트커피는 제2101호**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농축물’에 분류된다.

커피 원두나 볶은 커피는 제0901호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 비율은 상관없다)’에 분류된다.

화가용 또는 학생용 물감 형태로 소매 포장한 커피 농축물은 제3213호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 모양인 것·튜브·병·접시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이다.

세계화에 준비된 **Global No.1** 관세전문가집단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을 최고로'
지원관세법인이 약속 드립니다.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통관 및 물류의 ONE-STOP서비스
- 보세창고 운영
- 내륙운송 전국물류망 구축



지원관세법인
G-ONE Customs & Trade Service Corp

<http://www.gonecustoms.com>

본사 / T.055-758-4600 F.055-758-4670 부산 / T.051-254-4611 F.051-254-4612

평택 / T.031-683-1155 F.031-683-1158

(주)지원로지스(보세창고,검역) / T.031-682-6112 F.031-686-6111

(주)델타해운항공(물류) / T.031-682-6113 F.031-682-6114